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우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번 선거과정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된 정책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선자의 정책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토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정권, 발전적 대북정책 모색을

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NLL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북한 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착단계에 들어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기존 정부의 성과도 고스란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분란이 적지 않았지만,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접근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전략은 노태우 정부시절에 확정된

'한민족공동체방안'에서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

2·13합의 이후 한나라 당에서 현정부의 대북정책도 근본은 자신들의 통일방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올바른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정권이 교체되면 대북정책을 정쟁화하는 분위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의 몇 차

배 바뀌면서도 통일방안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통일방안의 대안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질 수 있지만,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정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부가 이룩한 대북관계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보다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경우와 같이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흑시라도 새로운 정부가 반동적인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또 다른 한미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새로운 정책을 펴기위한 국내적 인프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정부내에서 통일업무의 분장문제일 것이다. 남북관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처의 개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대북정책을 부서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람직 방향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당선자나 당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선거의 구호로서 혹은 정권 획득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에 매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선 이후 정국 정치공방 격화 걱정된다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앞으로 5년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때까지 현직 대통령과 똑같은 수준의 경호와 경비를 받게 된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의 정국이 더 걱정이다.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전략이 유난히 기승을 부린 점을 감안하면 대립과 갈등 등 후폭풍이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집권에 실패한 정파에선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이다.

향후 정국의 핵심은 BBK사건 연루 의혹을 파헤칠 '이명박 특검'과 '삼성 특검'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정치권의 판도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발표되는 '이명박 특검'은 대선의 연장선에서 정국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도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 정파는 총선 일정에 맞춰 정치적 계산에 분주하다. 대선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막관까지 사상 유례없이 난립한 것도 총선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계계편과 합종연횡 등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쟁점이 경제살리기였듯 국민들의 관심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부동산 및 세제문제 등에 집중돼 있다. 정치공학적 접근보다는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주문에 부응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패자를 배려하는 지도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 패배한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생결단식 대결구도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하 시늉만 할 건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올렸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하 권고를 받았던 전남지역 6개 지방의회가 마치 못내리는 시늉만 내 눈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말로 올리고 되로 내리' 식의 이 같은 일부 지방의회의 행태는 대쪽 삭감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수시의회는 애초 2천741만원이던 의정비를 49.6% 인상한 4천100만원으로 결정했다가 겨우 200만원만 내렸다. 목포시의회도 59%나 올려 4천100만원으로 확정된 의정비를 260만원 내린 3천840만원으로 결정했다. 순천시의회 역시 79% 인상했던 3천984만원에서 84만원 내린 3천900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이밖에 곡성군의회와 장성군의회도 소폭 삭감에 그칠 전망이다.

일부 지방의회의 이번 의정비 인하조치는 행정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중앙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리는 시늉만 할 것이다.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30% 수준이다.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비를 대폭 올린 것은 의원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지난해 유급제로 바뀌었다. 이는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도 지방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눈금식 '필름' 인하에 그친 행태는 주민을 무시하고 우회하는 처사다.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자성(自省)부터 해야 한다.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 자세로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正道(正道)일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려면 4년 안에 100시간의 보수 교육을 참여해야 한다. 의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면허증 소지자도 일정 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행사 대부분도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디즈니랜드 등 유흥지나 관광지, 인기가 높은 골프장 인근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이같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행사를 유지하려는 시설, 프로그램이 큰 사업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행사 주최측은 세미나 등의 참석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에서 장소를 정하고 연간

이들을 감안해 행사 주최측은 교육 스케줄도 관광지나 오락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일정 시간 교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관광이나 골프 같은 오락을 즐기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또 이같은 세미나, 회의 참석 경비는 세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교육과 관광을 겸한 사업은 유망 사업으로 인기가 높은 것이다.

회사의 중요 회의 등을 위해 여행을 하는 경우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광이면 관광, 회의면 회의, 선을 어는 놓고 엄격하게 나누지 않는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고



정대연

한국문인협회에서는 최근 문학공원 건설 계획서를 발표했다. 프랑스 파리 한 복판에 있는 '광명'보다 더 세계적인 공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묘지와 5만평, 문학비 15만평, 문학관 부지 10만평 등으로 한국 문인들의 유물·유적·문인들이 써온 책 등을 갖춰 조성하겠다는 것이 문인협회측 안이다.

이 문학공원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치해야 한다.

1930년대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 '극예술' 등을 발행하고 평론을 발표한 박용철 생가와 '봄비'의 저자 이수복 선생님의 고국이 방림동, 김현승 선생의 시비가 무등산 원효사 입구에 있다.

이외 목포에는 '차범석문학관'과 '박화성 기념관'이 들어서 있고 영암에는 백재 왕인박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무안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공화까지 들어섰다. 또 무안 공

광주에 문학공원 반드시 유치해야

특히 오는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되면 이 공원과 더불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양 의 표상인 국립 5·18묘지, 전 세계적인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기념관 '김대중컨벤션센터', 7년 임란을 승리로 이끈 '거북산' 여천 선소 등이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다. 송강 정철의 식영정, 면양정 송순의 '면양정사'와 가사문학관, 단편 서남해안 시대를 발전시키는 데 부응함에 있으며, 그 유물·유적관이 해남읍 내 '녹유당'에 있고, 실학의 거두 정약용의 유배지와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명림의 생가, 유희준의 '남도 답사 일 변지'가 강진에 있다.

겨울철 운동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부상 예방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과 운동시 부상 방지법을 당부하고자 한다.

겨울철에는 손가락·발가락·뒤통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장백해지는 경우 동상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동상에 걸렸다면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고 환부를 잘 씻고 말린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낮아지면 심장 및 혈관, 호흡기, 신경계통 등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한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 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머리 부분에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항에 취항하려는 외국항공사는 기존에 맺어진 국가간 항공협정과 관계없이 자국과 무안공항 노선을 활용, 여객과 화물을 무제한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여수에서는 세계엑스포도 열린다. 얼마나 환상적인 조건들인가. 문학 공원이 들어서 수 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가.

이같은 유적들을 감안해 체계적인 여행 및 답사 코스를 만들고 기반 시설을 세운 뒤 전국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한다면 서남해안 시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광주에 문학 공원을 유치하는 것, 세계에서 1등 문화·관광 국가가 되는 절경이라고 본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소설가>

겨울철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실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미리 예방한다.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되도록 실내에서 실시하고 외부로 나간다.

겨울철에는 체온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으며 옷은 겹쳐 입되 많이 입지 않는다.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한 몸을 데우는 것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동영·서부소방서 구조조급과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지구는 10만년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間氷期)를 반복해왔다. 지금의 적도 빙하로 덮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가장 최근의 빙하기는 1만년 전쯤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구의 빙하 면적은 약 1억5천만km로 전체 육지의 10%에 해당한다. 빙하가 전부 녹을 경우 지구 해수면이 60m 정도 상승해 인류 문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

북극 빙하가 2012년 여름까지 모두 녹아내릴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최신 위성 자료를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NASA에 따르면 올 여름 북극 빙하의 전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특히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줄어들고 그 때문에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표의 물은 태양열을 흡수하지만 얼음은 태양광의 70~80%를 반사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가 자정적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8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편의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

하기 그지없다.

네거티브 공방 속에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경제 살리기 못지 않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수립도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빙하를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세미나 참석하며 관광도 즐기는 사회

일정이 담긴 책자들을 보낸다. 그런데 안내 책자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중국·홍콩·대만·태국 등이 들어 있는 반면 한국을 본 지역은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같은 지역은 우수한 장소로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런 행사 유치 등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 같다.

외국을 돌아다니며 새삼 느끼는 것이 한반도 남해안 경치다.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뛰어난 경치라는 천혜의 요건을 갖춘 만큼 일정 시설을 갖추고 이같은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외국인들은 세미나 참석 일정을 조정할 때 대개 자신들의 조국도 둘러 보고 세미나도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는다.

미국인 특유의 실용적 사고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떤가. 혹시 세미나, 회의, 선진지 시찰 등이 목적이거나 이유로 오직 그것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닌가. 이 때문에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면 참석자 스스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남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어떤 목적으론든 누구나 집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싶고 즐기고 싶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이다. 머니면 외국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해야할 일을 하면서, 법이나 규정,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범주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즐길 필요가 있다. 죄책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솔직하지 못한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다.

방송사 리포터들 우리말 구사 제대로 못해 아쉽다

최근 방송사에서 '리포터'를 현장에 보내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내보내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전국 팔도의 다양한 내용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청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리포터'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말의 연용법칙은 받침이 없는 말 뒤에 '이', '을', '에' 같은 조사가 붙으면 앞의 받침대로 소리를 내야 한다. 예컨대 "꽃이 피었다"는 "꼬치 피었다"로 발음 해야 하는

데 "꼬시 피었다"로 발음하는가 하면 "꽃을 먹는 돼지"를 "수술 먹는 돼지"로, "빛이 많다"를 "비시 만타"로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를 비롯해 기자, 아나운서까지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들이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방송 언어는 그 나라의 표준말이어야 한다. 방송 제작자들은 제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차형수·인터넷독자